

문제 바꾸기

정 범 진 |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사무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연구원
제주일보 논설위원(2002~)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2002~)
미국 플로리다대 교환교수(2007. 1 ~
2008. 2)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여 피하기도 한다. 물론 답이 보일 때까지 문제를 덮어둘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롭거나 논리적인 답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바르게 해결하거나 결론지어야 할 문제도 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경우가 있다.

답안지에 쓸 것이 없는 학생이 정답과는 관련 없는 것을 잔뜩 써놓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답변이 궁색한 발표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척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는 것이 문제 바꾸기의 고전적 사례이다. 시간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거나 상대를 권위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처신하거나 질문자의 입장을 되묻는 방식도 있겠다.

‘싸가지’ 논쟁도 문제 바꾸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부분 이 논쟁은 원래 도덕 문제는 아니다. 그저 어떤 다른 문제로 다투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밀리면 문제를 도덕 문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래의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 그 녀석은 싸가지가 없어’ 하는 식으로 원래 문제를 잊어버리고 모두들 바뀐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의견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참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자명한 문제에 대해서 다수결 문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표에 따라서 취직 혹은 실직이 결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옳고 그른가보다도 다수결이 중요해진다.

첨예한 대답을 하고 있는 문제에서 패자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면 이번엔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승자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 역시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 통합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문제를 풀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2천원씩 성금을 내자고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독거 노인, 치매 환자, 고아, 학대받는 아이들, 북한 주민, 이재민, 최빈 계층, 차상위 계층 등등을 다 합쳐서 5만원씩 내기로 하자면 답은 달라진다. 문제에 적당한 조작을 가하면 답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과 노령 인력 재활용은, 제한된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항상 따로 푼다. 심지어는 담당 부서가 다르기도 하다. 그러니 답이 맞지 않는다. 이공계 기피라는 현상이 장학금이 부족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이 아님은 자명하지만 항상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면서, 경제적이지 못한 - 즉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 에너지를 거론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도롱뇽을 들고 나오고, 뜻대로 안되면 밥 굶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

신정아의 문제는 권력형 비리나 간관주의가 답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전문가 사회, 전문 분야의 능력보다 그 외적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윗선에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풍토, 그리고 쪽정이를 가려내지 못할 만큼 사고와 소재가 천박한 우리 사회의 지배 계층의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를 바꿔서 푸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 풀겠으니까 바꾸는 것이다. 또 쉽게 풀려고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슬슬 바꿔나가는데 정작 체점을 해야 할 사람이 문제가 바뀐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원자력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추가 원전 건설, 부지 확보, 방사성폐기물 처분, 원자력 수출, 인력 수급, 행정 체제... 우리가 이런 원자력의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일까? ☹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면서, 경제적이지 못한 - 즉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 에너지를 거론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도롱뇽을 들고 나오고, 뜻대로 안되면 밥 굶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

문제를 바꿔서 푸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 풀겠으니까 바꾸는 것이다.